

‘공생발전’

국정 새 패러다임 제시
최대통령 8·15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공생 발전이란 균형과 발전이 함께 진행되는 뜻으로 그동안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친 서민 중도실용,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탐욕경쟁’에서 ‘윤리경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막노동 힘들지만 희망으로 버틴다”

광주·전남 외국인 5만명 시대

외국인촌 르포

광주·전남 외국인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은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전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길거리에서 이들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외국인 5만명 시대를 맞아 지역 외국인 현황과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기사 2·3면

■ 광주 하남동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 도로 한 편의점 앞 길거리.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근로자 3~4명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 등 편한 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을 찾은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피곤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미소 역시 함께 발견됐다. 힘든 일상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표정이었다.
편의점 안쪽 골목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는 케냐, 토고,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40~50여명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
넓은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외국인센터 앞 마당에서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취재진과 마주쳤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그는 기자에게 “오늘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며 “내일은 꼭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센터 마당 앞 기둥에 묶인 빨랫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때묻은 작업복 3~4벌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다. 낡고 헤진 작업복은 이들의 지친 일상을 집약하게 했다.
오구 8시가 되자 일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외국인센터를 찾아왔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들 만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센터 안에



서는 흥겨운 아프리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에서 온 이들은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주제는 대부분 작업 내용과 일당이었다. 가나에서 온 한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종일 쌀 포대를 창고에서 차에 실었다”며 “일당으로 9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다리에는 작업을 하다가 슬린 상처가 나 있었다.
외국인센터 마당이 어느새 검은색으로 옮겨졌다”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 일요일엔 20~3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와 음식을 사먹는다”고 말했다.
인근 PC방에서도 가족·친구와 화상 채팅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모두 지친 상태였지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분위기가 밝아졌다.
약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마이클(가명·36)은 “한국에서 돈을 모아 고국에 돌아간 뒤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

지난 12일 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일과를 마친 아프리카 출신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엔 크리켓 경기... 각국 언어 요란

■ 영암 삼호읍

지난 13일 밤 어둠이 깔리면서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일대는 외국 한 거리를 옮겨놓은 듯 보였다. 조선족과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면서 일순간 조그만 시골 거리가 다양한 언어가 소용되는 외국인촌으로 변모했다. 보통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간판이나 외국인

전체인구 25% 외국 노동자 6000여명 ‘영암의 이태원’

들이 쉽게 국제전화걸 수 있도록 국제전화 할인카드를 판매하는 마트 등은 이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베트남 전용 마트에 들어서자 여섯 명의 베트남 남자들이 Ca phe(베트남 커피), Sinh to(과일주스) 등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트 안벽면에는 베트남어로 빼곡히 쓰여진

음식 메뉴판이 붙어있고 진열대에는 온갖 종류의 베트남 상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 마트 주인은 “2년 4개월 전 목포에서 영암으로 옮겼다”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 일요일엔 20~3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와 음식을 사먹는다”고 말했다.
인근 PC방에서도 가족·친구와 화상 채팅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PC방 점원은 “자기 나라 가족·친구들과 화상 채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 일대 원룸촌은 이들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지다. 160개가 넘는 원룸 건물에는 대불공단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방에 5~6명씩 모여 살고 있다.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는 탓에 평일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

를 만나기 쉽지 않지만 주말이 되면 이 일대 거리로 몰려든다.
원룸촌에서 5분 거리인 대불주거단지 농어촌종합복지센터 대운동장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주말이면 축구·크리켓 등을 즐기는 베트남·방글라데시·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들이 뒤섞이면서 운동장이 시끌벅적해진다. 김수일(56)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장의 설명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10.9%), 금천구(9.1%) 다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영암군(8.3%, 5004명), 그중에서도 삼호읍은 영암군 외국인의 90%가 넘는 425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해 ‘영암의 이태원’으로 불릴 정도다.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6000명을 훨씬 웃돌아 전체 인구의 25% 가량을 달할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와 젊은층 이탈로 거리가 텅 비다시피하는 다른 농촌 지역과는 풍경이 사뭇 다르다. 거리와 상가, 체육시설 등에는 젊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고 사설 환전소와 음식점을 비롯해 중국·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마트도 성업중이다. 외국인들이 영암 속에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화 학부 062)605-1114
대의원 062)605-1115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금환 대표전화 (062)234-3222 http://www.joytour.kr

국내여행: 목포-제주도 ₩149,000원~ 장흥-제주도 ₩169,000원~ 광주-제주도 ₩289,000원~

일본: 가을 광양혜리로 떠나는 북큐슈 4일 ₩249,000원 카멜리아 IN/광양혜리OUT 떠나는 북큐슈여행 4일 ₩299,000원 품격 나가사키, 하우스템보스 4일 ₩399,000원 9월초 막바지 여름휴가 대박특가 4일 ₩299,000원 자유투어 일본 자유투어 제대로 즐기!! ₩99,000원~

중국: 무안출발 가을상품출시 3일 ₩817,000원~ 상해,항주,삼정성(매주 월수 출발) ₩847,000원~ 북경,백석산,공중초원,비호국(매주 화 출발) ₩828,000원~ 북경,백석산,공중초원,비호국(매주 금 출발) ₩877,000원~ 북경,신향,태항산,안양(매주 금 출발) ₩897,000원~ 북경/만리장성(매주 화요일 출발) ₩379,000원~ 북경/만리장성(매주 목요일 출발) ₩429,000원~ 대만 (9/10, 30일 단 2회 여행) ₩799,000원~

동남아: 6일 베트남&캄보디아 ₩699,000원~

미주: 7일 LA 자유여행 ₩1,450,000원~ 7일 미서부 정통 미서부일주 ₩1,990,000원~ 8일 미서부/디즈니 ₩2,190,000원~

골프: 오렌지리조트와 함께하는 사이프러스 CC 1박2일 36홀 ₩199,000원~ 18홀 ₩169,000원~